

哲學의 一般化와 俗流化(七)

申南澈

그럼으로 哲學의 眞正한 一般化는 大衆의 實踐的 또는 그들의 切實한 內的 欲求에 依하여 企望될 바이고 一 個의 解釋者가 註譯者의 努力 그것이 一般化를 持來하지는 못할 것이다. 勿論 그 解釋者나 註譯者의 努力이 大衆 의 一般化에 對한 一環으로서 그 意義를 가질 것이나 그러나 그 解釋者, 註 譯者의 努力이 一般化를 意味하지는 못할 것이다. 一 解釋者나 註譯者가 眞正히 一 體系를 解釋하고 註譯하였다고 할 것 가트면 그것은 벌써 單只 一 解釋이나 註譯에 쓰치는 것이 아니라 그 體系를 土臺로 한 새것의 出生 이고 다른 創作이라고 볼 수 잇슬 것이다. 嚴密과 正確을 그리고 探遠을 重 要視하는 哲學의 理解 더구나 그것을 外國語로 移植함에는 細心한 用意를 게을리 하지 못할 것이다.

그럼으로 나는 다시 한 번 말한다. 哲學의 一般化는 大衆의 스스로의 努力 에 依하여 成就 될 것이고 그 努力은 그들의 實踐이 社會的으로 歷史的으로 規定됨으로 因하여 『無用의 用』이 아닌 現實的 慾求에 依하여 成就 될 것이 라고 그리하여 實踐的 興味가 問題決定의 要因이라고- 以上과 가티 나는 哲學의 一般化의 可能 與否를 史的으로 例示하며 論述하고 그것의 俗流化의 哲學에 對하여 略述하였다고 생각한다. 이제 最後로 韓氏의 該論文을 다시 한 번 쓰러내어 그 語不成說의 理論을 더구나 그의 生存의 理解를 拜聽하여 보자.- 『實在探求의 航海』에 번득이는 一葉片舟의 危殆危殆한 羅針盤업는 深 宏久遠한 航海에 對한 確乎한 理解도 업는 航行을 漸間, 그것의 가 닳는 곳 이 어데인가 注視하여보자.

適者生存과 優勝劣敗의 싸윈流의 進化論과 天文學的 理解 미테 『現代生存 의 立脚地』를 究明하려하신 氏의 態度를 나는 認定한다. 적어도 人類의 思惟 內容이 豊富하여 감을 싸로 三次元의 世界는 四次元의 世界로 그리하여 宇 宙의 範圍는 無限大로 擴張되어 나아갓고 사라서 世界觀이 새롭은 形態를

가초야 나타나게 되었다는 點을 指摘한 데에 對하여 나는 首肯한다. 그러나 氏가 四 個 項目으로 要한 것이 얼마나 쏘 어찌케 生存의 立脚地에 對하여 現代的 解釋을 가져 왔는가 쏘는 우에도 말한 것과 가티 生存의 意義를 把持하는데에 對하여 □許의 寄與를 가져 왔는가에 對하여는 조금도 解答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. 내가 讀者에게 不親切한 態度라고 하는 것은 이 點이다. 何如 間 『現代 生存의 立脚地』는 그 出發에 잇서서 當然한 態度이엿스나 肝 要한 點에 對하여 붓잡을려다가 노친 感이 不無하다. 『이오니아』地方에서 본 太陽은 東에서 썬서 西으로 回轉하얏스나 『피사』에서 본 太陽은 地球와 그 地位를 顛倒하얏다.